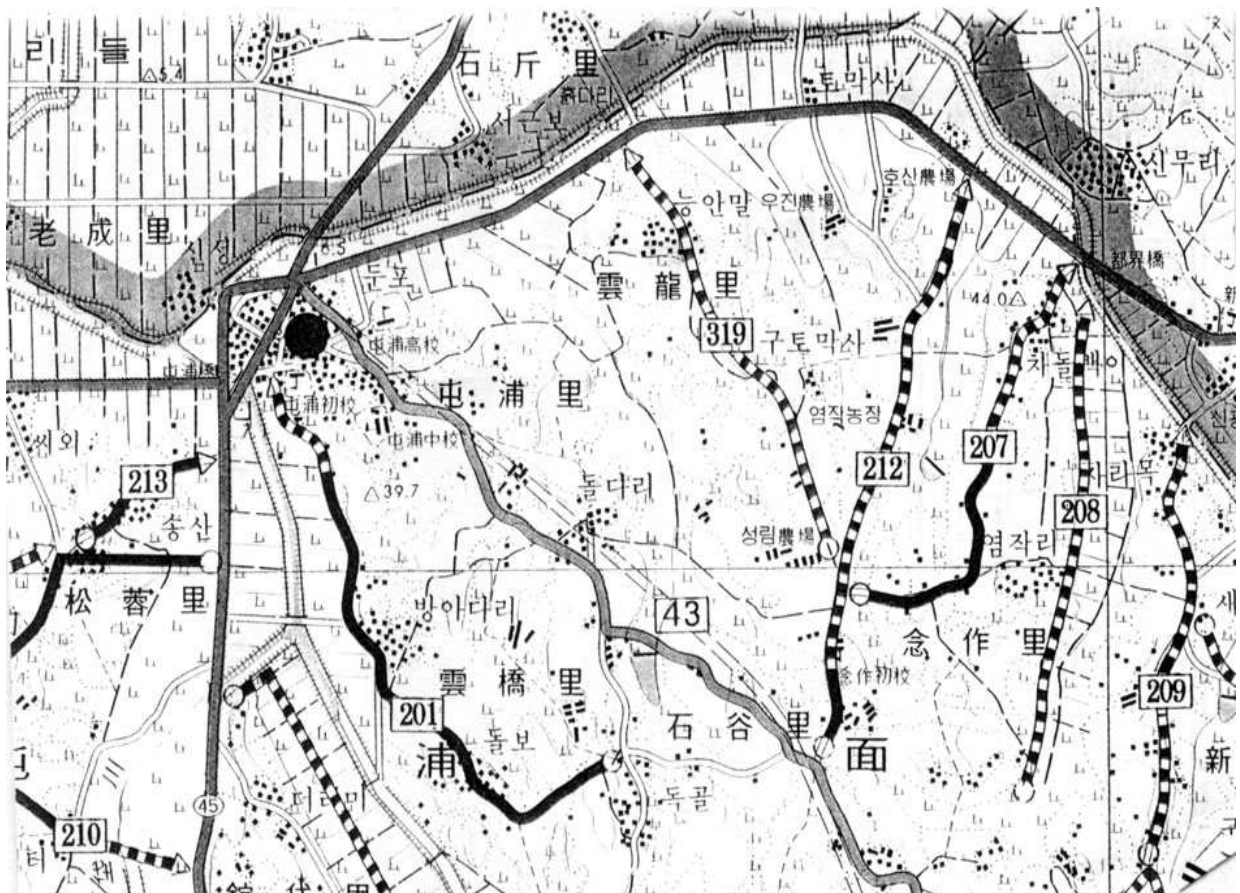


둔포리

둔포리는 둔포면의 한 마을로 여섯 개의 작은 마을로 나뉜다. 둔포리는 1구에서 5구까지 나뉘었으나, 아파트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98년 1월 16일자로 둔포 2리에서 6구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1구에서 6구까지 나뉘어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1, 2구뿐이었다. 1, 2구 세대수가 늘어나 1구를 1, 5구로, 2구를 2, 3, 4구로 나누었다. 그래서 비록 분리는 되었으나, 아직도 1구, 5구는 한 마을처럼 지내고 있으며 2구, 3구, 4구도 분리되기 전에 있던 자궁이나 마을 기물을 서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둔포리는 다른 리에 비해 상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둔포리는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으로서 예전에 소금을 매매하던 곳으로 소금배들이 많이 드나들었으므로 둔포 또는 둔포장이라 하여 둔포리라 하는 동시에 면의 이름도 둔포로 고쳤다.

<둔포리 위치도>



⊠ 강변계, 둔포다리, 점촌, 쇠전거리, 비석거리, 둔포6리 마을

둔포1리는 강변계 마을이라 불리는데 예전에 이곳에서 소금배들이 많이 드나들어 소금을 매매하던 곳이었으므로 둔포 또는 둔포장이라 하였다.

둔포2리는 (용남골) 둔포다리 마을이라 불리는데 둔포천을 사이로 둔포다리와 예전에 용남산아래 용샘이 있어 용남골이라고 불리었다. 그 터가 현재도 남아있다고 한다.

둔포3리마을은 장터 동남쪽에 있던 마을로 점촌이라 불리었으며 1992년 1월 1일에 둔포2리에서 갈려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둔포4리는 예전에 도수장이 있던 마을로 쇠전거리가 있었으며 92년 1월 1일에 둔포2리에서 갈라져 내려옴.

둔포5리는 비석거리 마을이라 불리는데 예전에 길가에 여러 비석이 늘어서 있어 불려졌으며 시장이 있고 92년 1월 1일에 둔포 1리로부터 갈라졌다.

둔포6리마을은 방아다리(현 운교1리)와 둔포2리 경계인 야산에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서 98년 1월 16일자로 둔포2리에서 분리하여 생긴 곳이라고 한다.

<조사당시 둔포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둔포4리>둔포면사무소에서 50m정도 평택쪽에 위치한 곳이다.

<둔포5리>(장터)둔포의 중심지에 위치한 마을로서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다. 면사무소 뒷골목과 옆골목에는 아직도 5일장이 행해지고 있다.

<둔포6리>방아다리 (현 운교1리)와 둔포2리 경계인 야산에 (주)백남건설에서 1997년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위치해 있다.

2) 현황

강변개의 인구는 남자 240명, 여자 214명으로 총 454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149호에 이르며 주민의 97%가 상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농업이 1% 제조업이 0.5% 서비스업이 1.5%이다.

용난골의 인구는 남자 509명, 여자 460명으로 총 969명이 살고 있다. 또한 상업이 82%로 주민의 대부분이 상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둔포3리(점촌)의 인구는 남자가 455명, 여자가 448명으로 총 903명이며 주민의 약 90%가 상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쇠전거리의 인구는 남자가 236명, 여자가 246명으로 총 482명이 살고 있으며 주민의 50%가 상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비석거리의 인구는 남자는 329명, 여자는324명이 총 653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207호에 이른다. 이 마을이 시장이 형성된 곳에 있었으므로 주로 주민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둔포6리의 인구는 남자가 368명, 여자는 324명으로 총 692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297호이다.

- 인구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강변계	454명	240명	214명
둔포거리(용난골)	969명	509명	460명
점촌	903명	455명	448명
쇠전거리	482명	236명	246명
비석거리	653명	329명	324명
둔포6리	692명	368명	324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상업	기타
강변계	100%	1%	0.5%	1.5%	97%	
둔포거리(용난골)	100%	5%	-	3%	82%	10%
점촌	100%	10%	2%	1%	89%	
쇠전거리	100%	45%	-	5%	50%	
비석거리	100%	7%	-	8%	85%	
둔포6리	100%	5%	21%	-	2%	72%

강변계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21ha, 밭은 없는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농기계는 관리기, 경운기등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둔포다리(용난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15ha, 밭2ha로 조사 되었으며 농기계는 관리기, 이앙기,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등이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점촌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39ha, 밭13ha로 조사 되었으며 농기계는 관리기, 이앙기,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 콤파인 등이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쇠전거리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33ha, 밭7ha로 조사 되었으며, 농기계는 관리기, 이앙기,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 건조기 등이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비석거리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18ha, 밭은 없는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농기계는 관리기, 예취기, 경운기 등이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와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둔포 6리 마을의 농경의 현황은 논 1ha, 밭 2ha로 조사되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강변계	21ha	21ha	-

둔포다리(용난골)	17ha	15ha	2ha
점촌	52ha	39ha	13ha
쇠전거리	40ha	33ha	7ha
비석거리	18ha	18ha	-
둔포6리	3ha	1ha	2ha

- 농기계 보유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에취기	콤바인	건조기
강변계	2대	-	-	3대	-	-	-
둔포다리(용난골)	9대	2대	3대	5대	5대	-	-
점촌	7대	2대	6대	1대	6대	1대	-
쇠전거리	12대	6대	3대	8대	19대	-	2대
비석거리	6대	-	-	1대	1대	-	-
둔포6리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강변계	1개소	1개소	-
둔포다리(용난골)	1개소	1개소	-
점촌	1개소	1개소	-
쇠전거리	1개소	1개소	-
비석거리	1개소	1개소	-
둔포6리	1개소	1개소	-

강변계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가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층은 40~5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난골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가 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점촌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가 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쇠전거리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가 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석거리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이씨가 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층은 10~2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둔포6리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가 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기타성씨
강변계	100%	37%	28%	16%	-	19%
둔포다리(용난골)	100%	34%	32%	8%	-	26%

점촌	100%	25%	18%	5%	5%	47%
쇠전거리	100%	36%	29%	15%	3%	17%
비석거리	100%	18%	19%	5%	-	58%
둔포6리	100%	21%	15%	-	11%	53%

- 학생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강변계	28명	19명	18명	14명
둔포다리(용난골)	62명	41명	38명	19명
점촌	32명	21명	17명	14명
쇠전거리	46명	28명	17명	11명
비석거리	28명	21명	34명	15명
둔포6리	31명	27명	26명	11명

- 최고령자

강변계 마을의 최고령자는 소갑례씨(81세), 용난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성여씨(91세), 점촌 마을의 최고령자는 장만분씨(90세), 쇠전거리 최고령자는 김길순씨(92세), 비석거리 최고령자는 김귀선씨(80세), 둔포6리 최고령자는 김동화씨(84세)이다.

- 마을 호당 평균소득

년에 강변계 마을 약1200만원, 둔포2리 마을 약850만원, 둔포3리 마을 약680만원, 쇠전거리 마을 약770만원, 비석거리 마을 약960만원, 둔포6리 마을 약860만원

3) 자연 경관

장터 뒤에는 용난산이 있는데 이 산에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용샘이라 불리운다.

또 장터 북쪽에 있는 길로 평택과 성환으로 가는 세 갈래의 길이 있고 장터에서 동쪽으로 석곡리 가는 길 옆에 시장이 서던 거리가 있는데 그곳을 쇠전거리라 한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으로서, 예전에 소금을 매매하던 곳으로 소금 배들이 많이 드나들었으므로 둔포 또는 둔포장이라 하여 둔포리라 하는 동시에 면의 이름도 둔포로 고치어 둔포면에 삽입되었다.

5) 입 향

강변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씨는 주로 김씨로서 김씨가 37% 이다. 또한 이씨 박씨등 다양한 성씨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다.

용난골에서 마을의 80%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 호수는 206호에 이른다.

둔포 3리는 현재 박씨가 5대째 살고 있는데 둔포리에서는 이 마을을 가장 오래 지키고 있는 성씨라고 한다. 지금은 김씨가 마을의 최대 성씨이며 마을의 터를 잡은 성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비석거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씨는 주로 김씨로서 김씨가 36% 가 살고있다. 또한 이씨 박씨 최씨등 다양한 성씨들이 고르게 분포한다.

쇠전거리 옛날 갯물이 들어와 포구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타지방 사람들이 왕래하며 자연히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성씨가 이곳에 먼저 터를 잡게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6) 지 명

- 강 변 계 : 장터 서남쪽 갯가에 있는 마을.

- 세 갈 포 : 운교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노성천에서 만나 아산만으로 흐르는데 세갈래로 갈라졌다 하여 세갈포라 불리운다.(장터에서 서남쪽에 있는 물막이 갯벌)
- 용 난 산 : 용이 났다 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 용 샘 : 용이 났다는 샘이라 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용샘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다만 그자리에 약 50평정도 되는 웅덩이를 다른 사람이 파서 개인적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 비석거리 : 면사무소에서 50m 정도 평택 쪽으로 올라가면 위치한 곳으로 지금은 도로 확장 공사로 그 자취가 남아있지 않다. 옛날 비석거리에는 길가에 군부대신 윤운렬, 토포사, 윤영렬, 윤치소, 및 중추원 의관 이재룡, 이범수의 비가 15년 전만 해도 있었으며 비석 거리에는 윤보선 대통령의 일가가 살았다고 한다.
- 두리봉산 : 운용리와 경계가 되며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다.
- 나 못 벌 : 장터 동쪽에 있는 들이다.
- 독 박 골 : 신선거리 동쪽 너머에 잇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옷샘이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도없고,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 건 피 장 : 우시장 옆의 쇠가죽을 말리던 곳으로 지금은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해있다.
- 쇠전거리 : 장터에서 동쪽으로 석곡리 가는 길옆에 소시장이 서던 거리였는데 지금은 빌라가 들어서 있다.
- 장 터 : 둔포 시장이 있는 마을
- 둔 포 천 : 거무내와 왕지천이 둔포리에서 합류하고 둔포면과 평택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안성천에 이른다.
- 용 샘 : 용난산 기슭에 있는 샘으로 옛날에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
- 웅 데 이 : 장터에서 동쪽으로 매차골 너머 빨래하는 웅덩이
- 노 성 교 : 둔포에서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군성리로 가는 다리
- 둔포다리 : 둔포 앞에 있는 다리로 앞다리와 뒷다리로 불리워짐
- 둔포 뒷다리 : 둔포에서 평택 서울로 가는 다리
- 성환 다리 : 둔포에서 천안시 성환으로 가는 다리

7) 전 설

특별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둔포 4리 2, 3년 전만 해도 2, 3, 4 구와 함께 산신제를 지냈는데 중학교 뒷쪽으로 산제당이 있었으나 산주인이 철거를 요구하여 산제당을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산제사도 없어졌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古 임상재씨-1973년 전국 최고소득 마을 대통령훈장 수훈

10) 종교현황

강변계마을 기독교인 둔포침례교회 (125), 둔포천주교회 (1678), 둔포성공회 (90)

둔포3리 마을 기독교--둔포감리교회 (664)

·둔포장로교회 (21)

·둔포순복음교회 (24)

·둔포통일교회 (10)

비석거리마을 기독교-둔포영락교회 (9)

11) 공장현황

둔포기업-318번지, 허가일 84.3.1., 면적 3,319, 현재 휴업중, 시멘트블럭 제조

태진산업-93-1번지, 허가일 94.5.13., 면적 4,348 (착공중), 일반플라스틱 제조

조인메이커-둔포 99, 허가일 96.9.30., 면적 5,799(미착공), 특수방청도료
덕성기업사-448-7, 허가일 87.9.10., 면적 2,198(휴업중), 시멘트벽돌제작
두레산업-10-10번지, 허가일 88. 6. 30, 면적 7,639(휴업중), 자동차씨트카바, 휠
현대화성(주)-산10-5번지, 허가일 91. 3. 11, 면적5,438(휴업중), 플라스틱 성형제품

12) 마을의 특징

강변계 마을은 면소재지로 상업(가게)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고, 싸전거리 마을은 5일장이 들어선 곳으로 대부분 상가로 이루어졌다. 마을번영회에서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직거래나 대형마트가 들어서 옛날의 10분의 1밖에 형성이 안된다.

이런 등등의 마을적 특성을 볼수 있었으나, 마을전체적으로는 둔포가 평택으로 가는 길에 있고 경기도와 가까워 많은 인구이동이 있어 색다른 마을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